

아시아 와 유럽

양지영

유럽의 유적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성소피아성당

성 소피아 성당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다. 그 위대한한 예술적 가치는 모자이크 대리석기둥 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20년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 완성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였다

(출처 :네이버)



몰도바

오르헤이울 베치 수도원



(출처: 네이버 통합검색)

오르헤이는 몰도바의 중부에 있는 도시이다. 수도 키시너우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다. 드네스트르강의 지류인 러우트강이 시내를 지난다. 시내에 바실레 루푸 왕이 세운 성두미트루교회가 있고 옛 오르헤이인 오르헤이울베키에 자연역사박물관, 동굴 속의 교회, 수도원이 있고 타타르족의 목욕탕, 잔재가 남아 있다. 그 일대는 오르헤이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벨기에

오줌싸개 동상



오줌싸개 동상은 1619년에 조각가 제롬 뒤케누아(Jerome Duquesnoy)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랑 플라스](#)와 함께 브뤼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줌싸개 동상을 처음 보고 느낀 이미지는 실망과 그것의 초라함. 하지만 브뤼셀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청동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벨라루스

민스크 시내



(출처: 네이버)

수도 민스크는 약 94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벨라루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독립국가 연합(CIS)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재건되어 도시 미관이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다. 도로망 또한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역사적인 유적이나 옛 건축물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은 민스크 중앙로인 독립대로(AVE. NEZAVISIMOSTI, 브로스벡트 니자비시모스치)에 따라 위치해 있다.

아시아의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베트남

미선 성지



미선 유적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있는 고대 [참파](#)의 [힌두교 사원](#) 유적지이다. 4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참파 왕국](#)의 왕들에 의해 세워졌다.^{[1][2]} 이 사원들은 현지에서는 '바드레시바라'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 시바](#) 신에게 봉헌된 것이다. 미선은 행정구역상 베트남 중부 [꽝남성](#) 주이쑤옌현에 위치해 있으며, [다낭](#)에서 남서쪽 으로부터는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사원군은 2개의 산맥에 의해 둘러 쌓인 2km 너비의 골짜기 안에 있다.

출처:네이버

태국

반치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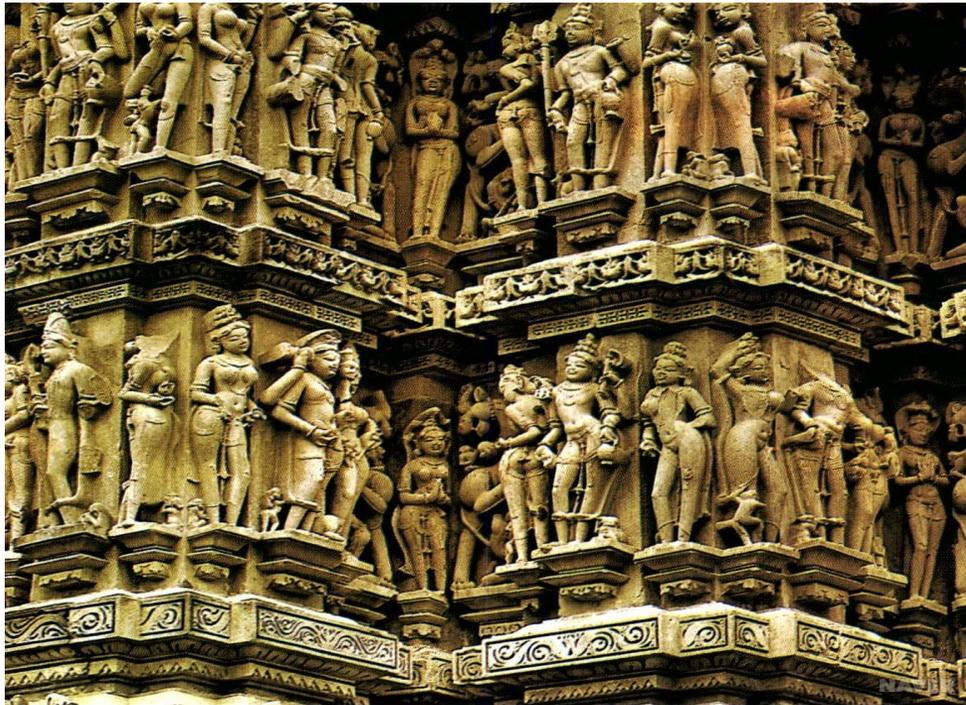
반치앙([태국어](#): แหล่งโบราณคดีบ้านเชียง, Ban Chiang)은 [태국 우돈타니 주 농한 암프](#)에 위치한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후 200년](#) 사이의 선사 시대 유적지이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지는 반치앙 문화와 다른 태국의 선사 시대 유물이 [캘리포니아 박물관](#)과 다른 소속의 단체에서 불법적으로 발굴되어 다시 [2008년](#) 헤드라인에 올랐다.

출처: 네이버

인도

카주라호



옛이름은 카르주라바하카(Kharjjūravāhaka). 인도 중부 마디야프라데슈주(州) 북단(잔시 동남동 약 175km)에 있는 유적. 한때는 80기 남짓의 사원이 융성했을 것이라고 상상되나, 지금은 완전히 보존된 곳을 포함하여 대소 약 20개소의 사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오리사의 여러 사원과 함께 북형(北型) 건축의 전형이다. 스리야를 본존으로 모시는 치트라그프타사찰, 자이나 교의 파르슈바나타, 아디나타, 간타이 등 여러 사찰 외에는 모두 시바 사원 또는 비쉬누 사원이다. 서군(西群)에 있어서는 차우사트 요기니 사원이(9세기 말) 가장 오래 되었으며, 화강암을 사용하여 형식도 다른 사원과 전혀 다르다. 기타 대부분의 사원은 황색 사암(砂岩)을 사용했다.

출처 네이버

인도네시아

프람바난 사원



프람바난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와섬](#) 중부의 [자와통아주](#)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 중 최대 규모인 사원이다. 주로 8~9세기에 번영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로부두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사원 중의 하나인데, 보로부두르 사원보다 50년 후인 9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가운데 시바 사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사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시바 사원은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 그 남자를 속였다가 분노한 남자의 마법에 의해 탑이 되어버렸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발레 공연을 비롯하여 야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